



동해 심해 가스전 첫 시추위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산업부의 검토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임

〈보도 주요 내용〉

11.4(월) 연합뉴스, SBS, 「‘대왕고래’ 시추 카운트다운 시작됐다... 첫 시추위치 확정」, 내일신문 「대왕고래 첫 시추 위치 확정」, 파이낸셜뉴스 「‘대왕고래’ 시추 초읽기 단계 돌입... 첫 시추 위치 확정」 등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시추 위치가 확정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.

〈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〉

동해 심해 가스전 첫 시추 위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.

석유공사는 시추 위치(안)를 포함한 세부 시추계획(안)을 마련하여 금주 중 산업부에 승인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며, 이후 개발전략회의 등 검토 절차를 거쳐 산업부가 승인하면 최종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.

담당 부서	자원산업정책국	책임자	팀 장	조진화	(044-203-5185)
	동해심해가스전개발 홍보TF	담당자	사무관	김태우	(044-203-5186)

